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본격화

전주시, 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 구간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정류장 설치... 2025년 말 준공 목표 추진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가 도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등을 갖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뀐다.

전주시는 지난 9일 전북도가 '기린대로 BRT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등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BRT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도로 중

앙에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을 설치하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과 세종, 부산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고시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06억 원 등 총 412억 원을 투입해 호남제일문에서 한벽교 교차로까지 10.6km 구간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을 설치하고, 이와 함께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주시역 유일의 대중교

통수단인 시내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7월 중 BRT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기린대로 BRT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시민 공론화 및 홍보에 집중기로 했다.

이후 시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4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BRT 종합계획'에는 전주시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송천중앙로의 3개 노선이 포함됐으며, 지난해 6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50%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백미영 전주시 버스정책과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전주시의 근본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와 주민설명회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 미취업 청년·실업자·다문화가정 등에 일자리 제공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과 실업자, 다문화가정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기로 했다. 시는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4일간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하반기 사업 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시는 8개 사업 참여자 3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은 △청년소통 활성화 사업과 어진박물관 실감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 청년일자리(만 18~39세)인 꽃도시 조성 및 가꾸기 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인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인 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전주시민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

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조건은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만 65세 미만 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다문화사업은 1일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태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직접일자리 제공함으로써 고용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되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경우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여성가족과(063-220-5344, 063-270-631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서비스

전북도 협업 시민 대상 변호사 등 통한 무료 상담

전주시는 지난 8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와 협업해 시행하는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서비스'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법률·세무 상담에 대한 요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담에는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에 참여 중인 변호사 2명(김정선, 박정교 변호사)과 전주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세무사 2명(김지훈, 박종욱 세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담을 신청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세무 관계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전북도가 시행하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이번 무료 상담실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8월 공포·시행)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의 자양분으로 삼아 향후 변호사회의 세무사회, 법무사회 등 전문직역 종사자들의 공익목적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상담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변호사·세무사 상담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항상 망설여 왔다"면서 "이번 무료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법률 및 세무상담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수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전북도에서 전주시민 대상으로 공익목적의 무료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 표현"하면서 "전주시도 이번 무료법률상담실 조례 공포를 통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주시는 지난 8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와 협업해 시행하는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 서비스'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법률·세무 상담에 대한 요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전주시민은 누구나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을 신청(063-280-2847, 전북도청 1층

희망법률상담실)할 수 있으며,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마을세무사(063-280-232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수료식 가져

전주시 도시농업을 이룰 전문가 29명이 추가 탄생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지난 9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제8기 도시농업 전문가 29명이 배출됐다.

교육생들은 △도시농업의 이해 △유형별 텃밭정원 조성 기술 △텃밭수업 교안 만들기 △텃밭 조성 실습 △병해충 진단과 방제법 △토종종자와 GMO △꿀벌과 도시농업 △실내정원 조성 이룬 텃밭 정원 조성 실습 △텃밭요리 등 이론 50시간, 실습 50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 수료생들은 향후 추가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농화학·화훼장식·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식물보호·조경·자연생태복원 관련) 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도시농업관리사는 지난 2017년 개정된 도시농업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자격증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기술



을 보급하고 관련 시설관리 등을 맡는다. 또 주말농장과 도시 텃밭 등을 관리하고 학교 텃밭 운영, 교육기관과 체험활동의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한 수료생은 "실내 교육장에서 진행된 교육도 매우 유익했고, 농장에 나가 직접 텃밭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갔던 현장 교육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꼭 취득해 전주시 도시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중성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에서 농업 활동을 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 바닥분수 본격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전주월드컵경기장 바닥분수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공단은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 바닥면적 321.2㎡ 규모로 설치된 바닥분수를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다. 매시간 50분간 가동 후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는다. 바닥분수는 지난해 8월 조성됐다. 지난달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간 시범

전주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워크숍 가져

전주시가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일 라투체 블랙라벨에서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35개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17개소 기관 실무자 및 담당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 실무자들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 및 민원응대 CS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각 기관별로 추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일자리 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 오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에서 기관별 또는 조별로 사업수행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의 시간도 진행됐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